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열린 바자’ 이번주 개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각종 회사 품이 교회로 답지하고 있다.

이번 바자의 목표액은 12억원이며 각 교구에 할당된 규모는 1억원. 교구마다 뒤질새라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바쳐진 물품도 일상 생활용품에서 의류, 피아노, 적금통장, 귀금속, 그림, 토지문서, 콘도회원권에 이르고 있다. 어느 성도는 각종 전자제품을 수

요가 있는 만큼 무제한 물량을 내어 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자제품은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되며 판매금액 전액은 건축현금으로 바칠 예정이다.

크고 작은 물품이 답지될 때마다 이를 접수하고 정리하는 이들은 한마음으로 감사를 연발하고 있다. 성도들의 식지 않는 교회 사랑의 열정을 생생히 느끼기 때문이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는 23일(목) 오전 11시에 개장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25일(토) 까지 5시 폐장예배 후 막을 내

리게 된다.

바자 장소는 교회당. 2~4층에 각 교구별로 성도들이 기증한 옷, 주방용품, 생활필수품, 잡화, 서적, 학용품, 운동기구 등 각 가정에서 사용가능하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하게 사용될 물건들이

전시 판매된다. 이 기증품은 바자 기간 중에도 각 교구 매장에서 계속 접수한다. 옥담층과 1층에는 여전도회가 주축이 되어 먹거리 장터도 벌인다.

또한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한 농촌교회의 특산물도 현지에서 직송하여 판매된다.

그간 모든 물품들을 나누고 판매하는 일에도 새 예배당에 벽돌 한 장을 보태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열린 바자에는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이웃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특별히 비전2000운동 본부에서는 이번 바자에 태신자나 믿지 않는 이웃도 참여토록 독려 하여 교회에 보다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생활용품 · 전자제품 · 적금통장 콘도회원권 · 토지문서 등 답지

성도 · 이웃 등 누구나 참여 새 예배당에 벽돌 더하길

비전2000

“꺼지지 않는 기도를”

오전 · 오후 10시 다니엘기도, 50일 연속기도 등 실시

비전2000운동 기간 동안 온 성도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기도운동도 동시에 편다.

‘다니엘 기도’란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주일 예배 후에는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심기도 시간을 갖는다. 또 비전2000기간 중 2층 예배실은 항상 개방돼 50일간 연속기도실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 배부되는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서에는 자신이 참여 가능한 시간을 표시해 현금함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전개될 비전2000운

동의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이번 주

주일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부서별)

찬양예배 후: 전교인 합심기도회,

매일: 비전2000 새벽기도회, 다니엘 기도, 연속기도회, 잃은 양 찾기, 태신자전도

▶ 다음주

주일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교구별)

찬양예배 시: 10월 새가족환영회

찬양예배 후: 전교인 합심기도회,

매일 오전 5시 30분: 비전2000 새벽기도회
매일: 비전2000 새벽기도회, 다니엘 기도, 연속기도회, 잃은 양 찾기, 태신자전도

장소	취급품목
교회당 앞 (주차공간)	농수산물, 먹거리(만두, 잡채, 떡볶이, 식혜, 커피, 음료 등), 김치, 젓갈, 밀반찬, 건강식품, 자유판매대(위탁판매품), 생활필수품, 여성의류, 남성의류, 위탁판매품 일부
2층	1·2·3·4교구 매장 전자제품 매장
3층	5·6·7·8·9·10·11·12교구 매장 위탁상품 및 기증품(생활필수품, 의류, 잡화) 매장
	고가기증품(피아노, 시계, 금반지, 도자기, 액자) 매장,
4층	바자본부, 상담실 호박죽, 육개장, 만두, 음료 등

▲ 장소별 취급품목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7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김숙자	이경자 최옥기 정혜진 조진상	이덕빈	이옥자
김영심	편상범 전해경 이문숙 조미란	한금희	조봉환
배영애	송후락 김진애 최상남 조혜령	남미희	전유향
최난수	최양락 곡인관 최진삼 최진석	제오복	이은범 황애자 이경년
안윤정	김동수 김영아 이기혁 이은영 김연수	이재영	이재영
김유경	김재중	최국삼 송사예 제홍섭	김은미
안태완	김평수 김기수 김옥진 김수남	최경애	진승규 정숙진 진성아
정옥수	김광연 김영민 김정민	김예환	진은아
김경아	안 평 박승희 이동주 조은순	조정옥	재영할머니
유명석	김수영 음혜경 김인순 박명순	조정훈	홍동기 조진행 조정훈
왕경희	박유선 박기양	신정순	최철현
권창순	최복철 이호연 최성욱 최미선	허인숙	신용현
탁경준	임철섭 이상동 변희일	손성윤	허상아
김 희	김풍국 김 은 김소신	무 명	심기택
김종자	박경옥 이말숙 고인순	무 명	임친섭
			이상동 변희일

○... 태신자카드는 97비전2000운동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주일·11·13부 예배 현금시간이나 예배실 입구의 현금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20장 1절 ~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 한 곳을 주어 자기를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 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사십팔 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시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20:1 - 21:45).



이중윤 목사

갈렙의 신앙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할 때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에겐 처음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즉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명령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세상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 정황이야 어찌 되었든 그를 죽게 한 자를 무조건 죽이려 했습니다. 피의 보복을 하려는 인간들의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일단 그를 피신케 하고 소망의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험원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자의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인가 아니면 과실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원한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또는 보지 못하고 무엇을 던진 것이 사람을 죽게 했다면 이런 자를 도피성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사고였음을 그 성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간 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그가 들어갈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해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제도가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인간가치를 강조한 것

모든 일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율례를 모세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출21:12, 13).

그러므로 우발적인 살인자들인 경우 성소로 피하거나(왕상1:51, 2:28)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줄 모르고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일에 반항하는 행위요 대적하는 악행입니다.

2. 우주적인 법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객)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수 20:9).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주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협한 국수주의와 이기적인 지방색은 비성경적입니다.

3. 신본주의적인 법

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시민생활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반 시민법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민법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정윤리나 사회 질서 문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법

이 도피성 제도는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명령하실 때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닦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신19:3).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매년 봄에 보수공사까지 했습니다. 길이 갈라지는 곳에는 정확한 도로 표시도 했습니다. 도피성을 찾는 이들은 헤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표지판은 크고 명확해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오려는 이들에게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서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가는 길로 안내까지 해야 합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계22:17, 요6:37).

도피성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기 쉬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환상만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님께로 피난해야만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갈 수 없다면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이들은 그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음으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교회와 국가”

이 글은 10월 13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김종필 자민련 대선후보와의 질의 응답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강의요지: 교회와 국가는 둘 다 신적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점에 있어서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 없고 국가 또한 교회의 내정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통치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범주 안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국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국가가 선정을 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권세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사도적 역할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구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운 목사: 백 여년 전 격변기에 기독교가 들어와 이 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데 대한 평가와 21세기에 교회가 국가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김총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필 후보: 우리 나라의 기독교는 국난을 당할 때마다 선두에서 서서 순교자적 활동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나라 근대사의 토양에는 이러한 기독교적 정신이 밀반침돼 있습니다. 도래하는 21세기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옳게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모두 정성을 모아 우리 나라를 위해 정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부터 70년대까지 미신적 요소를 타파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전근대적 미신행위가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미신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미개한 시절엔 경이적인 대상만 보아도 숭배하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긴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에 미신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종식될 것입니다.

▷최근 타종교와의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군목 수를 감축하고 군승, 군신부 수는 증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종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회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창설된 군목제도임에 틀림없는데 이를 과소평가 내지는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의 소리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군목의 수를 감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나 그래서선 안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전장에서 싸우던 때 죽어가는 동료들을 위령하던 군목의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목의 문제는 시류에 따라 변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승계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기독신문 8월 27일자를 보면 3당 유명 정치인을 비롯,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찍혔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세계적으로 문제야로 등장한 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일명 통일교,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개칭)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비호하는 것을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8월 20일자 통일교기관지 '종교신문' 1면 머리기사에는 4당 후보 모두 화환과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통일교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가끔 문선명씨로부터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자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긴 하지만 통일교에 대해서만은 동의하거나 무엇을 증여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라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회복을 외치고 있으나 종교교육을 통한 인격의 변화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도 교회가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듯이 만일 귀하께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종교교육과 연결시킬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보이스카우트 총재를 역임한 바 있으며 국가가 이 일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육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시달리며 인성을 상실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

습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 바른 인간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위에 지식이 더해질 때 지혜로운 인간이 되며, 능력과 사람됨이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교계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 위주로만 생각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분단상태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신뢰를 굳혀가야 할 것입니다. 식량난에 고생하는 북한동포를 돕는 일에 일시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영농방법을 개선할 길을 열어주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돕는 일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량지원이 신뢰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통일원 등 국가적 창구를 통해 질서있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교계의 활발한 논의가 지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휴마िता 교도소는 재범율이 지난 10년 동안 5% 미만이라는 경이적인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와의 전쟁 선언보다는 사랑으로 교화하기 위해 사설 종교교도소 제도를 도입할 뜻은 없는지요?

▶일본 오오츠크해 부근에는 종신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도소의 교화사업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명소로까지 부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행해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집권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은 국민이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고자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열린 바자에 붙어

"이 헌금으로 돌기둥 세워주세요"

박철훈 장로 (바자 준비위원장)

"주의 집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분부하심 따라 우리 서울교회 가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 현실이 암울한 가운데 우리가 이 큰 일을 맡았으니 어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교회를 짓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영광이고 기쁨이며 축복이기에 온 교회는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며칠 전 한 가정의 어린 아기는 자기가 받은 용돈을 저금통에 모아 새 예배당 짓는 일에 벽돌 한 장이라도 더하겠노라며 헌금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만들어 준 예금통장과 증권증서를 아낌없이 바치며 "돌 기둥은 이 헌금으로 세워주세요"라고 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몰라서 바친 것이라 하지 말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종이 한 장 아끼면서 절제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은 인내로 견디면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아이도 부모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던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야 할 때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가정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바칠 것이 없다고 물려서도 안된다. 과부의 엽전 두 닢을 받으시고 칭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은 받으시고 모자란 것은 친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가난한 과부보다는 더 많이 가진 자들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많은 헌신을 해야겠다.

무엇을 얼마만큼 바쳐야 하느냐고 계산하

지도 말자. 믿음대로 받은대로 은혜대로 드리면 된다.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도, 다락방 식구들도 온 교회가 함께 깊어져야 할 집이기에 우리는 힘껏 바치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려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꾀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탄은 지금도 내가 받을 축복의 대열에서 나를 제외시키려고 바치지 못하도록 재물에 집착하게 하고 아까워서 감추게 하고 있다.

돈은 귀한 것이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누가 선뜻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자.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 놓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할 바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줄 알고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는 이를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맨 손으로, 눈물로 시작한 우리에게 백억원이나 되는 옥토를 주셨고, 그 어려운 민원도 잠잠케 하셨으며, 건축허가도 받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려고 이번엔 열린 바자를 준비했다.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으로 믿고 이제는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아름답고 거룩한 전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동정

◆ 김상철 장로(4교구 양재다락방)는 대만에서 열리는 '민주화기금의 역할

과 전망' 세미나에 참석 후 미국에서 열리는 제 2회 한미우호상 시상식에 참석 차 14일 출국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김병상·김정수 집사 가정에서 제공.

10월 10일 ~ 16일까지 접수된 물품

접수번호	품목	수량	기증자(교구)
119	시계·꿀	1·12	홍정선·강풍자(1)
120	크리스탈 꽃병 외	6	송두삼(1)
121	전기다리미 외	6	강영자(4)
122	손목시계	1	신정순(11)
123	금	20	이영자(2)
124	금목걸이	10	이관도(1)
125	주방용세제	300	홍성기·장동임(4)
126	실크블라우스	2	백춘자(1)
127	여성의류·금	3·50	김복녀·이승민(4)
128	의류	3	최죽희(3)
129	도자기 외	17	홍일성·이명아(7)
130	손수건	138	한정원(8)
131	의류	12	이종운·이승희(4)
132	학습교재 외	20	진승근·이혜선(6)
133	의류	11	신순우(5)
134	의류	5	황보추자(7)
135	전동칫솔	1	최양진·강윤숙(3)
136	청소기·믹서기	각 20	오정수·이영희(2)
137	각종 전자제품	필요량	오정수·이영희(2)
138	홈세트	2	권오철·박영애(9)
139	엑세서리·시계 외	176	이양철·김미향(11)
140	금거북	50	노송성·이영옥(3)
141	엑세서리 외	13	권윤경(4)
142	은수저 외	5	김홍두(1)
143	피아노 외	2	최홍렬·오충례(1)
144	은수저 세트	10	최형열·김찬진(1)
145	고추	160	김명심(2)
146	여행용 가방	100	강종심·전인화(1)
147	안마기 외	148	김춘기·최향림(1)
148	콘도회원권	1	하인선·남태순(2)
149	피아노	1	김영준·박태희(7)
150	도자기·의자	5·35	박철훈·이경희(11)
150	적금통장	1	박철훈·이경희(11)
152	전기난로 외	7	안순이(11)
153	클라리넷 외	4	최재규·천정화(11)
154	의류	15	장양일·정정숙(6)
155	귀금속·시계	2	심재술(3)
156	그림	8	전광영(타교회)
157	의류	15	신정일·여영숙(2)
158	손목시계	2	김천기·곽숙(11)
159	화장지	1000	이웅선·박순봉(1)
160	액자 외	15	박정선·김남순(11)
161	귀금속 외	3	정호진·김유정(11)
162	토지문서	1	이상윤·원복순(5)
163	적금통장	1	민영수·이미숙
164	적금통장	1	이상득·최순옥
165	적금통장	1	김정현·김영미
166	적금통장	1	민순구·이영희(6)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2.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3.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